광주불교계 봄을 맞아 다양한 강좌개최

빛고을포교원 제2기 빛고을불교대학 경전반
증심사, '2023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아카데미'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불교대학 등에서 다양한 불교강좌가 열리기 시작했다. 사진은 빛고을불교대학 입학식 장면.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불교대학 등에서 다양한 불교강좌가 열리기 시작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지난 3월 7일 제2기 빛고을불교대학과 경전반 입학식을 봉행하고 올 한 해 진행할 교육강좌 등을 시작했다.

총 70명이 등록해 이날 진행한 입학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연성 스님, 이동배 정광고등학교 교장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덕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다. 자비심이 없는 믿음과 이해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다"며 "불교대학을 통해 올바른 정법을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아는 만큼 믿는 종교이다. 불교대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은 앞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기초교리, 경전 등 불교교리와 문화답사, 템플스테이 참여와 심화과정인 〈한글아함경〉 등을 공부한다.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도 자비신행회와 공동으로 3월 14일부터 16주 동안 '2023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를 안다는 것, 한다는 것' 이란 주제로 진행하는 강좌는 주지 중현 스님의 불교와 종교, 역사, 불교와 힐링, 교리, 윤리에 대한 자세한 강의와 도인수의 불교문화강좌 등을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자비신행회 지혜홀에서 진행한다.

조영훈 증심사 기획실장은 "강좌는 교리와 더불어 요가, 참선, 문화답사 등 이론과 실습 위주로 진행하며, 누구나 궁금해 하는 불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는 강좌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강좌는 불교입문 교양강좌를 겸해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강좌를 진행한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도 4월 6일부터 '제3기 녹색불교아카데미' 를 개설해 환경과 불교교육을 진행한다. 강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불교기본교리, 호남불교사, 부처님의 생애, 대승보살의 삶 등 불교교육과 5번의 환경특강, 불교신행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심화과정으로 '제1기 녹색불교경전학교' 를 4월 5일 개강해 12월까지 니까야 합송, 금강경, 보리도차제론, 선시로 읽는 부처님 말씀, 예불대참회문, 환경특강 등을 진행한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개설 목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불교환경운동을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불어 환경문제를 실천하는 고민을 넓혀내고자 진행한다"며 "앞으로 불교환경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의개설의 의미를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침체되었던 지역불교계가 다양한 강좌를 통해 지역불교 포교에 나선다.

금산사 출가열반주간 특별정진 회향

미륵십선 천일기도 입재



금산사(주지 일원)가 출가열반주간 특별정진 회향법회와 미륵십선 천일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는 3월 6일 열반재일을 맞아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열반재일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보현사 주지 응묵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청암 스님, 금산사 재무국장 제환 스님을 비롯한 금산사 대중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공양을 올리고 탑돌이를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의 의미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일원 스님은 "오늘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재일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방등계단에서 그동안 출가열반주간의 특별정진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해마다 열반재일이면 이곳에서 탑돌이를 하며 부처님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생애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열반재일 법회 후에는 미륵전에서는 '세계평화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미륵성지 천일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요즘 세계는 전쟁과 지진, 살인, 방화 등의 뉴스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고, 환경파괴와 기후위기가 전 인류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금산사 조실로서 세계평화, 국태민안이 간절하여 오늘 미륵성지 천일기도 입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산사에 미륵부처님을 처음 모신 5월 1일에는 미륵강탄재를 올리고 미륵십선계 수계법회를 할 예정"이라며 "미륵십선 운동을 통해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세계평화와 기후위기 극복에 노력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이취임식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는 지난 3월 8일 나무숲센터 그린담 마홀에서 상임대표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은 제4대 상임대표로 취임했다.

해청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사업들은 무등 스님을 비롯해 역대 상임대표 스님들과 구성원 모두의 노고가 많이 담겨있다"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무등 스님은 이임사를 통해 "불교환경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뒤돌아보니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노력이 담겨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임하는 무등 스님과 공동대표 수월 스님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다.

행사에 앞서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제16회 광주공익활동가 자비의 쌀 나누기' 를 진행했다. 행사는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108명에게 각 백미 40kg씩 총 432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자비의 쌀은 광주지역 사찰과 개인 후원자 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쌀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쌍계사,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재

3월 2일 진영 공개도


쌍계사가 3월 2일 팔영루에서 고산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영담)가 고산당 혜원 대선사 열반 2주기를 맞아 추모재를 봉행하고 진영을 공개했다.

3월 2일 쌍계사 팔영루에서 봉행된 고산 혜원 대선사 추모재에는 주지 영담 스님, 전계제자 덕민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쌍계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이날 추모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고산 스님의 생전 가르침인 '잠시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는 '불식촌음(不息寸陰)' 영상을 시청하며 생전 스님의 유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스님의 진영을 마주하고 보니 스님께서 항상 이 지리산 자락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우리 문도들은 물론 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한국불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후학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쌍계사 영모전에 조성된 '고산혜원대선사 진영' 은 '전신정면의자상' 의 형식으로 경허 스님 초상화, 만해 스님 초상화, 법정 스님 초상화, 지관 스님 초상화 등을 조성한 김현철 작가가 1년간 작업했다. 김 작가는 "이번 초상화 조성에는 고산 대선사의 수행 정신과 신념, 불교계에 남긴 가르침 등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임했다"고 밝혔다.

쌍계사는 내년 3주기에는 고산당 혜원 스님께서 쓰셨던 방장실을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선양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933년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천전리에서 출생한 고산 스님은 1945년 범어사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48년 사미계와 195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5년부터 쌍계사에 주석하며 쌍계사를 일신하고 선, 교, 율, 차(茶)와 범패(梵唄)를 일상으로 실천하며 '불식촌음(不息寸陰)'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는 고산 가풍을 세웠다. 1999년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조계종의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원로의원, 2008년에는 전계대화상, 2013년 9월13일에는 쌍계총림 초대방장으로 추대됐다. 스님은 2021년 3월 23일 법납 74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백양사 前 방장 수산 스님 11주기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는 지난 3월 6일 대웅전과 조사전에서 前 방장 수산 스님 원적 1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제3대 방장을 역임한 수산 스님(1922~2012)은 19세에 백양사에서 출가해 1941년 법안 스님을 위패상좌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4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44년 백양사 강원을 졸업한 후 백양사 운문암, 정혜사, 다보사 등에서 정진했다. 특히 대중포교를 위해 완도 신흥사, 불갑사, 개암사, 태백 흥복사 등 낙후된 사찰의 주지를 맡아 중창과 포교에 매진했다. 3번의 백양사 주지를 역임하며 근검절약과 공심으로 교구본사로서의 사격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불갑사에 주석하며 백제불교초전성지로서의 수행도량을 일구었고, 불교종립 정광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2012년 세납 91세 법랍 73세로 입적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백양사 무공 스님, 문도대표 진각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다.

주지 무공 스님은 "큰스님께서는 한결같은 청빈한 마음으로 수행과 포교, 도량을 가꾸시는 데 진력하셨다"며 "후학들의 모범이 되는 큰스님의 모습이 아직도 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불교대학 36기 입학식 봉행

불교학과 58명, 법사과 18명 입학



전북불교대학(학장 이창구)이 3월 5일 큰법당에서 '제36기 불교학과 및 제31기 법사과 입학식' 을 봉행했다. 이날 입학식에서는 김석철 학인을 비롯한 불교학과 58명과 안수란 학인을 비롯한 법사과 18명 총 76명의 신입생이 입학허가를 받았다.

불교학과 이태곤 학인은 입학선서를 통해 "영예의 입학을 허가해 주심에 신입생 일동은 재학 중 학칙을 준수하고 참신한 학풍을 진작하며 불자로서 자질을 함양할 것"을 선서했다.

이창구 학장은 "불교대학의 공부는 콩나물에 물 주기와 같이 꾸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저와 함께 공부하며 자신을 키워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운사 동효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대학에서는 나를 바르게 알고 자신을 찾는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도반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잘 되니 많은 사람들을 입학시켜 함께 공부하자"고 강조했다.

김인석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따뜻한 봄날에 불교대학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도반으로 맺어지는 대학의 동문에게 전북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법향으로 환희로움을 줄 것"이라고 축하했다.

전북불교대학은 동효 스님(선운사), 법승 스님(정혜사) 법밀 스님(호암사), 법중 스님(통명사) 등 스님들과 이창구 학장, 백준기(전북불교대), 신용표(전북불교대), 이지복(전북불교대)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해 불교입문, 부처님의 생애, 근본불교, 대승불교, 불교문화, 불교인문학, 현대사회와 불교, 초발심자격문, 반야심경, 금강경, 불교의례 및 의식실수, 선의역사와 문화, 화엄사상과 법성게 등 다양한 교과과정과 템플스테이, 수계법회, 성지순례, 체육대회, 문화재답사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입학식에는 선운사 동효 스님, 금곡사 가법 스님, 혜정 스님과 (사)부처님세상 백준기 이사장, 전북불교대학 이창구 학장, 신용표 · 이지복 부학장, 김인석 전북불교대학총동문회장, 장순금 전법사회장, 1회 김명심 졸업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광사 명상상담大, 67명 수료 · 41명 입학

2월 26일, 2023년도 수료식
총무원장상 · 학장상 등 시상도



천태종 분당 대광사 부설 명상상담대학이 67명의 명상 전문가를 배출했다.

분광 대광사 명상상담대학(학장 월장 스님 · 대광사 주지)은 2월 26일 오후 3시 경내 지관전 3층에서 '2023년도 명상상담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 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과정(1급) 41명, 심화과정(2급) 26명 등 총 67명이 3년 6학기 과정을 마치고 수료했다.

이 자리에서 학장 월장 스님은 치사를 통해 "수료생들은 오늘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해 현대인이 겪는 스트레스와 자기소외 등을 심리 상담과 명상을 통해 치유해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과 주변 이웃이 행복해 질 수 있게 부처님 가르침과 상담대학서 배운 지식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과정 고규 수료생 등 40명, 심화과정 앙명석 수료생 등 25명에게 수료증서와 자격증서가 각각 전달됐다. 이어 월장 스님은 고규 · 양명석 수료생에게 총무원장상(신행상)과 이규남 · 성시락 수료생에게 학장상(정진상)을 수여했다. 이외에도 신재석 수료생 등 9명에게 우수상을, 김은희 수료생 등 9명에게 성실상을, 민홍동 수료생 등 9명에게 공로상을, 박윤정 수료생 등 9명에게 모범상이 각각 수여했다. 시상 후 졸업생들은 학장 월장 스님에게 명상상담대학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수료식이 끝난 후 입학식도 진행됐다. 41명의 신입생들은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명상 · 상담 · 불교 과목을 배운다.

김영환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명상상담대학서 명상을 배우면 사소한 고민과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입생 대표로 선서한 조내현 씨는 "평소 명상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 대광사 명상상담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수님들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따라 배우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분당 대광사 명상대학은 3년에 걸쳐 6학기 과정으로 운영되며 불교교리를 비롯해 심리상담, 명상 등을 교과목으로 강의한다. 강의 수료후에는 명상상담지도사 1, 2급 자격증도 부여한다.

김주일 기자

군산 성흥사 소외계층위한 자비나눔

군산 교도소, 쪽방에 컵 라면 기탁



군산 성흥사(회주 송월. 주지 보위)가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계층을 위해 컵라면 250상자를 기탁했다.

성흥사 회주 송월 스님과 김승수 성흥사 신도회장, 정동기 거사회장 등 신도회임원들은 3월 3일 군산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컵 라면 112박스를 기탁했다. 또 군산시 중앙동 주민지원센터에 100박스, 장애인 복지시설에 38박스를 기탁했다.

송월 스님은 "종교인들이 항상 소외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사회의 목탁이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남구 군산교도소장은 "불교가 특히 재소자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듯하다"며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성흥사에서 중앙동에 기탁된 컵라면 100박스는 쪽방촌의 독거어르신들과 장애인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